

# 大國崛起

최근 中國의 국제적 부상과 관련하여 歷史적 觀點에서 바라본 주요 強大國들의 興亡盛衰를 중국 CCTV 연재기획 중심으로 정리한 內容임

(※ 내용 중 다소 편파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문에서 인용된 內容임을 밝힘)

## 《 目 次 》

1. <大國崛起>의 背景
2. 國家별 崛起的 歷史
3. 社會 各界의 反應
4. <大國崛起>의 教訓

2007. 1.

經濟研究所  
북경대표처



13억 중국인을 충격에 빠트린 화제의 다큐

**EBS 특별기획 「대국굴기(大國崛起)」**

중국 CCTV서 3년에 걸쳐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사상·문화의 영향력, 정치체제·제도의 개혁이 대국의 흥망 결정”**

우리는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21세기 대국의 길을 찾아가려는 중국의 메시지를 우리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해 한국의 미래를 그려나가 봐야 할 것이다.

● **방송일시**

2007년 1월 29일 ~ 2월 10일 월 - 토 밤 11시 ~ 11시 50분

- 제1편 : 海洋時代 포르투갈과 스페인, 해양의 시대를 열다
- 제2편 : 小國大業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 세계를 움직이다
- 제3편 : 走向現代 영국, 현대화의 선봉에 서다
- 제4편 : 工業先聲 영국, 세계 최초의 공업화 대국
- 제5편 : 激情歲月 프랑스, 혼돈 속에서 일어서다
- 제6편 : 帝國春秋 독일, 유럽제국을 이루다
- 제7편 : 百年維新 일본, 아시아 강국으로 향한 백년간의 유신
- 제8편 : 尋道圖強 러시아, 강대국을 향한 피의 항해
- 제9편 : 風雲新途 소련, 풍운 속의 새로운 길
- 제10편 : 新國新夢 미국,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꿈
- 제11편 : 危局新政 미국, 세계 제1강국을 이룬 새로운 도전
- 제12편 : 大道行思 21세기 대국의 길

※ 해당 프로그램은 인터넷 VOD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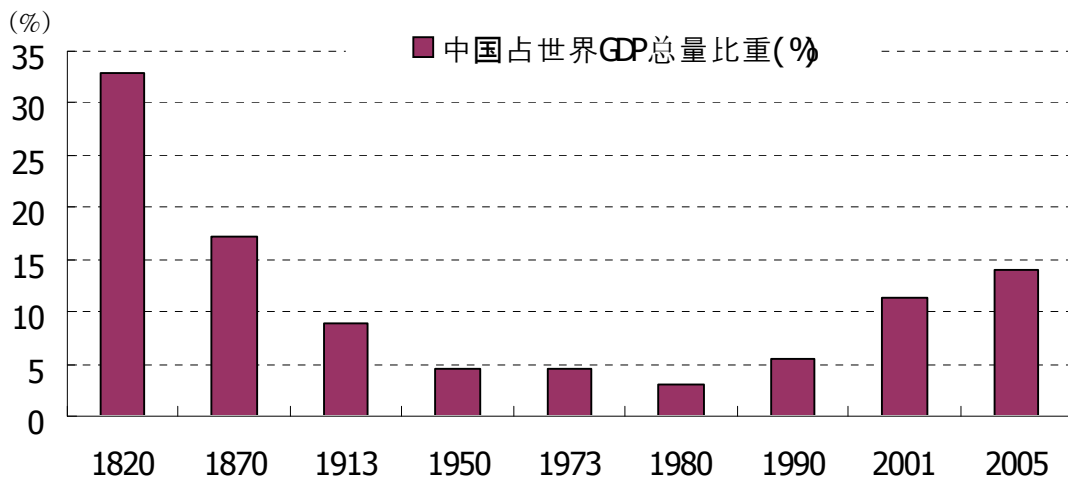
# 1. <大國崛起>의 배경

## 중국의 崛起史는 근대 이후 중국인의 꿈을 반영

□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에 걸친 고도성장이 새롭게 쫓기하려는 중국인의 꿈을 견인

- 중국은 1900년대 초까지 세계 주요 경제대국이었으나 그 후 점차 西方국가에 뒤 처지기 시작
- 중국의 유구한 문명과 빛나는 역사는 중국인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게 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西方국가 및 일본의 중국에 대한 약탈과 침략은 치욕의 기억으로 남음
- 1978년 이래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과 함께 '大國崛起' 추세가 힘을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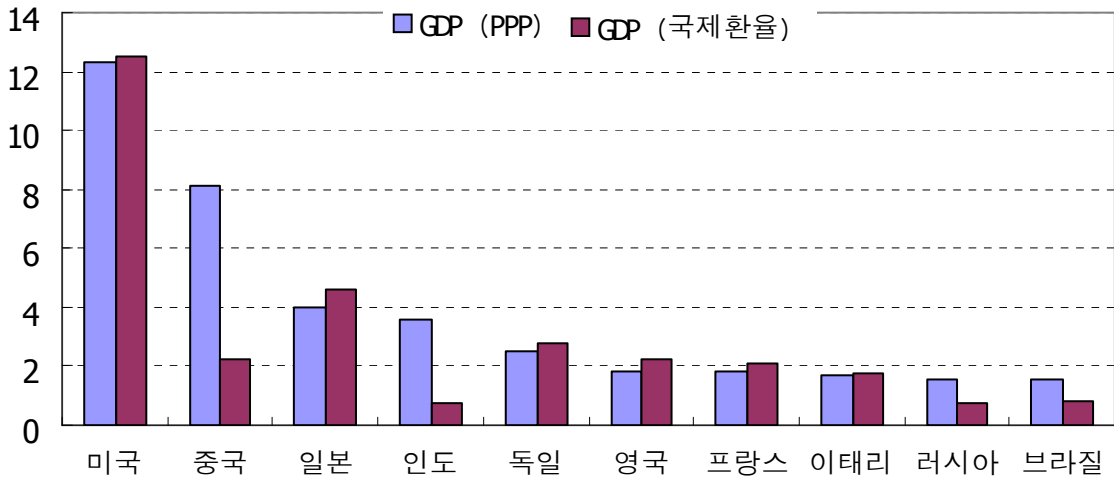
PPP(구매력평가)환율로 계산한 중국 GDP의 세계 GDP중 비중



자료: Angus Maddison, 2004, The World Economy : Historical Statistics , OECD

-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한 중국의 GDP는 세계 제2위이고, 정부에서 제시한 국제환율로 계산할 경우 세계 4위를 차지

(조 달러)



□ 중국의 글로벌화와 함께 西方국가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西方 문명의 유입이 가속

- 중국사회의 발전방향이 西方문명에 의해 크게 영향받음
  - 西方의 문명이 산업혁명을 견인하였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욕구의 증대는 생활방식과 정치민주화의 변화를 가져옴
- 중국의 현대화 과정이 西方문명을 학습하고 소화하는 과정임을 인정

세계 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쉼기 경험을 총화할 필요

□ 중국이 '和平崛起', '偉大復興'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 과도기 속의 개혁 확대와 체제 전환이 필요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사회의 문제점들이 첨예해지고 있으며, 그 중 현 체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
- 과거 중국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협상, 평화, 점진적 방식이 아닌 격렬한 충돌과 투쟁, 붕괴 및 재건의 역사를 경험
- 중국공산당을 포함한 국민들은 평화적 방식의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를 희망

-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 지도체제는 체제전환 시 사회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大國崛起>이념을 제시
  - 西方 대국의 쫓기와 같은 이성적이고 타협,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제도와 이익분배 방식을 모색
  - 고도로 발전하는 사회는 막강한 중앙권력을 필요로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권력을 약화시킬 경우 손실이 더 크다는 기본이념을 강조

□ 중국인들은 점차 사상이념, 사회제도 등이 장기적 국가발전에 극히 중요한 쫓기요소임을 인식

- 경제성장에만 의존해서는 강국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쫓기방식을 모색
- 귀전시(郭振錫) CCTV 경제채널 감독은 중국이 세계로 나아가려면 GDP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사상이념과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
  - 18세기 프랑스대혁명이 제시한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로 지금까지 세계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주창한 '민족의 독자적 의사결정' 이념은 <대서양 헌장>, <유럽국가 선언>, <UN헌장> 등의 국제협약과 反파쑸(Fascism)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

□ 중국사회의 제도 전환은 사회적 화해를 통한 안정적인 체제구축이 바람직

- 중국의 사상해방, 자유화 동란 및 舊소련의 붕괴 원인도 체제전환 실패에서 기인
- 現정부는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
- 중국의 지식인 계층은 西方의 인권, 박애, 자유, 민주 이념을 강조함은 물론 이같은 규범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중시

- <大國崛起>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 다른 이익집단 간의 협력과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

## 중국인의 개방 욕구가 반영된 국제화에 역점

□ 개혁개방에 실패한 공산주의 국가와 개혁개방에 성공한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경험을 총화

- 마르크스 사상이 중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약화
- 덩샤오핑(鄧小平)이 강조한 '돌을 만지며 강을 건너라'의 의미는 기존 경험과 교훈을 중시하라는 뜻
- 중국의 글로벌화는 세계발전의 추세 속에 중국의 발전을 연계시키는 방안
- 금융개방에서 법률재편에 이르기까지 국제경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지식인과 정치인은 세계 대국의 쫓겨간 경험을 총화할 것을 요구

- 중국의 지도층들은 중국의 발전은 전 인류의 문명을 흡수하고 학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 2003년 11월 24일, 중국중앙정치국은 '15세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의 발전사'라는 학습기관을 조직
  - 상기 학습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大國崛起> 다큐멘터리가 CCTV를 통해 제작됨

□ 막강한 경제성장 및 정치 안정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정부는 근대 대국들의 발전경험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교훈을 주고자 함

- 정치, 경제, 문화의 제도 및 이념이 선진국과 크게 차이나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적 특수성'을 강조하고자 노력
- 중국의 주요 언론은 西方의 자유, 민주, 공존 등의 이념과 제도를 소개할 때에는 특히 신중을 기했으며, 서구화 및 자유화가 정치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

□ 역사적으로 윗기한 경험이 있는 9개 국가의 발전 역사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

- 1) 포르투갈 2) 스페인 3) 네덜란드 4) 영국 5) 프랑스 6) 독일  
7) 일본 8) 러시아 9) 미국

## 2. 國家別 崛起의 歷史

### 1) 포르투갈

- 1143년 카스티유 왕국에서 독립한 포르투갈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독립국가 인정을 받음
  - 유럽대륙에서 첫 번째 통일군주제 민족국가의 위상을 세움
  - 12~13세기의 포르투갈은 봉건국가가 아닌 국민의 국가였으며, 포르투갈 국왕은 귀족들과 백성들의 절대지지를 받음
- 강대한 왕권을 바탕으로 포르투갈인들은 민족 귀속감으로 규합하였으나 대내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 포르투갈 국토면적이 10만 km<sup>2</sup>로 협소하여 자원이 부족했고, 동부 변방에서는 주변 왕국과의 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 15세기에 들어 포르투갈은 국가 생존 차원의 항해계획을 수립

- 포르투갈의 항해계획은 교역을 위한 항해가 아닌 200년에 걸쳐 추진 될 국가생존 계획
- 1406년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의 발견'이 출판되면서 세계 지리에 대한 이해와 개척에 대한 욕구를 자극
- 15세기 엔리케 왕자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국립해양학교를 설립
- 1443년 엔리케 왕자의 지휘 하에 로카에서 출발한 포르투갈 범선이 서 아프리카 해안의 보자도르를 통과하며 세계시장 개척을 단행

□ 포르투갈은 성공적 해양개척을 기반으로 대량의 아프리카 물자를 조달하며 세계 강국으로 도약

-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며 아프리카의 황금, 상아, 후추 등의 자원이 리스본으로 대량 유입

□ 포르투갈은 안정적인 교역과 자원확보를 기반으로 독립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

- 포르투갈이 본격적인 항해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는 동안,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중세기의 폐쇄된 암투를 벌이고 있었음
-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통일된 민족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귀족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음
- 독일 영도에서는 수백개의 크고 작은 연방국들이 전쟁을 벌이며 한정된 지역을 놓고 혈전을 벌임



- 포르투갈은 인접 국가들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넓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교역에 주력하며 강대국의 기틀 마련

## 2) 스페인

□ 1492년 이사벨라 여왕은 8세기 동안의 전쟁을 종료하고 스페인의 통일대업을 달성

- 스페인 통일 후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를 통해 스페인의 원양탐험을 추진

□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을 시작으로 국가영역을 크게 확장

- 1492년 이사벨라 여왕과 콜럼부스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건설과 항해가로서의 염원을 담은 원양탐험을 개시

- 콜럼부스를 신대륙의 원수로 임명하여 그 지역에서 획득한 모든 부의 10분의 1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8분의 1을 스페인에 바치도록 결정

- 여왕이 수여한 해군대원수 임명장을 지닌 콜럼부스는 여왕이 하사한 3대의 선박과 함께 출항

- 1492년 10월 12일 콜럼부스는 북아메리카의 파나마군도에 도착

□ 1494년 6월 7일 로마 교황의 중재로 포르투갈이 東方을 지배하고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지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 이 조약이 西方문명에서 갖는 의미는 대국의 식민지 분할 선례를 확립한 것이며, 이같은 추세는 그 후 베를린조약에서 정점을 이룸

- 이와 같은 조약을 통해 西方국가들은 명분을 갖고 글로벌 확장에 임할 수 있었음

-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앞다투어 영토확장을 가속화하며 세계 양대국 간 맹주 쟁탈 시기에 진입
  - 1498년 5월 포르투갈 항해가인 바스코가 인솔한 군대가 4년에 걸친 항해 끝에 인도의 켈리켓 항구에 도착
  - 1519년 9월 포르투갈 항해가인 마젤란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항해를 시작
  
- 포르투갈은 대서양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의 50여 개 거점을 확보하여 지구의 절반에 달하는 상선 항로를 독점
  - 16세기 초기, 5년 간의 포르투갈 향료 교역량이 22만 파운드에서 230만 파운드로 급증하며 당시 해상무역 제1 강국으로 부상
  
- 포르투갈이 東方에서 수확을 거둔 것에 비해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약탈을 감행
  - 1502년부터 1660년 사이,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18,600톤의 백금과 200톤의 황금을 취득했으며, 16세기 말에는 세계 금은 총 생산량의 83%를 스페인이 점유
  
- 강대한 왕권과 열광적인 종교신앙에 의지하여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해양을 기반으로 세계를 정복
  - 유럽에서 스페인은 천주교 국가의 절반을 통치하였고,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아메리카를 소유
  - 포르투갈 식민지는 아프리카, 브라질 및 환대서양, 인도양 항로에 위치한 섬들로 확대

□ 축적된 富가 공업과 상업이 아닌 종교신앙 유지 및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쟁에 사용됨

- 세력을 갖춘 귀족들은 공상업계의 발전으로 신흥세력이 부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공상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외국인을 자국으로 추방
- 제국은 점차 자국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의 비싼 상품을 구입하는데 익숙해짐
-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통화가 급격하게 평가절하 되었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소비행락에 빠져 있었음

□ 16세기 하반기 수많은 금은과 강대한 국가기구를 보유하고 있던 이베리아반도 국가들은 점차 쇠퇴에 길로 접어들

-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富가 순식간에 바닥나고, 사치와 풍기문란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국민들은 기본적 살림마저 어려워 지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

### 3) 네덜란드

□ 청어 수산교역은 네덜란드가 강성해 질 수 있었던 기반 무역

- 청어 교역은 14세기 네덜란드의 중요한 무역 활동
  - 네덜란드는 매년 북해에서 1,000만 kg 이상의 청어를 포획하는 등 네덜란드 인구 100만 명 중 20만 명이 청어 교역에 종사
- 네덜란드는 지리적 우위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전개
  - 네덜란드는 충분한 인적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획을 기반으로 동북 유럽, 잉글랜드, 남 유럽, 아프리카 무역시장을 개척

- 네덜란드는 유럽의 주요 수로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수상교통망을 보유
-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부터 향료, 실크, 황금을 실어 유럽 각지에 운송했고 귀향 시에는 소맥, 철기, 목재 및 해군보급품을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운송

#### □ 기술혁신과 국가신용에 힘입어 해상무역 강국으로 부상

- 혁신 기술이 반영된 무역선박을 개발하여 운송비용을 절감
  - 무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선을 설계하여 단가를 기존 상선의 절반수준으로 낮춤
  - 선체를 크고 둥글게 하고 갑판을 좁게 만들어 선박규모당 부과되는 세금을 줄임
- 신용을 중시하며 위탁받은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음
- 16세기 초 네덜란드의 상선 수는 총 1,800대 수준으로 잉글랜드, 프랑스, 스코틀랜드의 상선 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음

#### □ 상업활동 유지 및 촉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 상업활동으로 부유해진 시민들은 귀족의 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 자치권 확보에 노력
  -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법을 마련하여 귀족들이 그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더욱 많은 무역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 '시민자치' 확대로 네덜란드의 도시들이 부유해지면서 1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약 절반에 달하는 네덜란드인들이 도시에서 거주
- 상업수익 고수를 위해 외부간섭에 대해 강력히 저항

- 1543년 스페인 국왕은 정치적 협력방식으로 네덜란드의 통치권을 획득
- 스페인 국왕이 네덜란드에게 자국의 영토확장 전쟁을 위해 물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적극적으로 반항
- 1581년 7월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며 스페인 국왕의 네덜란드 각 城에 대한 통치권을 폐지

- 독립전쟁에 앞장선 상인들은 자신들이 장사에 주력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력한 보호자를 찾기를 원함
  - 네덜란드는 영국여왕을 군주로 모시는 동시에 영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네덜란드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영국여왕이 요구한 보호비가 스페인 국왕보다 비싸 무산
  - 1588년 네덜란드 7개 城의 상인과 엘리트 계층이 정치권력을 공동으로 관장하는 네덜란드 城연방공화국을 설립하면서 세계 최초의 '정치 권력을 보유한 상인계층 국가'로 성장

□ 네덜란드는 유럽과의 교역이 봉쇄를 당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교역을 발전 시키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

- 독립 전 스페인과의 교역은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으나 독립 이후 스페인 국왕은 모든 항구를 폐쇄하고 네덜란드 상선이 스페인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조치
- 네덜란드는 東方과 아메리카 항로 개척으로 무역활로를 변경
- 선진적인 상업제도는 네덜란드가 상업활동을 통해 富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
  - 1602년 네덜란드는 최초의 연합주식회사를 설립하고 東印度회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무역활동에 참여
  - 주식발행을 통한 융자방식으로 성공적인 자본을 구성
  - 네덜란드는 최초의 현대적 상품경제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서 은행과 증권거래소, 유한책임회사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상업체계를 구축

-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은 東印度회사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
  - 東印度회사는 마치 하나의 국가와 같이 조약체결권 및 독립군사권을 보유하고 아시아, 남아프리카로 세력을 급속히 확장
- 東印度회사의 무역활동을 통해 네덜란드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
  - 東印度회사 설립 후 해마다 50대의 상선을 해외에 파견했고, 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박 수 합계보다 많았음
  -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東印度회사는 15,000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교역액이 세계 총 교역규모의 절반에 달했음

### 東印度회사의 업적

10,000여 대의 네덜란드 상선이 세계 5대양을 누비며,

- 동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일본의 대외무역을 독점
- 동남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거느렸으며, 첫번째 식민거점인 바타비아성(지금의 자카르타)을 건설
- 아프리카에서는 포르투갈 수중에 있는 항로 요새인 희망봉을 귀속
- 대서양주에서는 네덜란드 한 개 城을 뉴질랜드라는 국가로 명명
-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을 점령
- 북아메리카에서는 허드슨강 입구에 뉴암스테르담, 즉 지금의 뉴욕을 건설

#### 4) 영국

- 정치개혁을 통해 입헌군주제를 채택함으로써 영국의 쉼기를 위한 안정적 정치 기반을 마련
- 엘리자베스 1세의 왕권통치로 국가권력의 위상을 강화시켰으며, 왕권과 의회의 균형 유지를 통해 국내 통치의 안정을 가져옴

-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른 직후, 영국은 대외무역 활동에 적극 참여
  - 1588년 스페인과 영국 간 대외무역 분쟁으로 야기된 '영국-스페인 大海戰'이 결국 영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세계 해양상업의 강자로 부상
  - 엘리자베스 1세는 통치기간에 <대헌장>의 약정을 지키고 국왕과 의회 간 권력의 균형을 유지
- 찰리 1세 때에는 왕권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국왕과 의회 사이에서 마찰이 빈번
  - 1642년 찰리 1세가 의회의 권력 위에 군림하는 과정에서 '영국혁명'이 발생했고, 결국 1649년 찰리 1세는 권력에서 물러남
- 혁명을 통해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그 후 영국의 정치 체제는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
  - '영국혁명' 후 크롬웰과 제임스 2세의 독재통치로 영국은 입헌군주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
  - 1688년 영국의회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제임스 2세를 즉위시키고 네덜란드의 군주인 윌렘의 통치를 거치면서 입헌군주제를 확립

□ 지속적인 대외확장 정책으로 영국은 광활한 식민제국을 건설

- 영국의 국내 정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영국의회는 시종일관 대외확장을 추진
-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사회 각 분야는 상업발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대외무역을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유지
- '영국혁명' 기간에도 의회는 대외무역권 분배를 위한 <항해법>을 처리
-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성한 해군을 기반으로 전 세계 무역에 영향력을 행사

□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념은 산업혁명의 근간을 마련

-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념에 힘입어 영국의 공·상업은 급속하게 발전
  - 1776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출판을 통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과 같으며 개체간 자유교역을 통한 고효율 자원분배로 더욱 높은 수준의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
  -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념은 영국자본주의식 공·상업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함

□ 무역수요의 확대, 특허제도, 기술발전 등이 산업혁명을 견인

- 해외 식민지 확장 및 생산능력 증대요구가 산업혁명을 촉구
  - 식민지 확장 및 해외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상품 수요량이 증가
  - 혁명적인 생산체계를 도입하는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
- 특허제도 도입을 통해 영국의 산업기술 가치를 제고
  - 영국은 16세기에 이미 특허제도가 생겼으며, 특허제도를 통해 발명자에게 약 15년 간의 과생이익에 대한 특혜를 부여
  -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장려 조치에 고무되어 사람마다 신기술, 신발명에 전력을 다함
- 과학의 발전은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
  - 1687년 뉴턴은 유명한 저서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판, 수학적 방법으로 만유인력법칙과 3대 운동법칙을 증명
  - 그 후 근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와트는 역학, 수학, 화학, 열학 등의 지식을 활용하여 개선된 증기기관을 개발

□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의 상호작용에 힘입어 영국은 세계 강국으로 쏠기

-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은 생산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



- 영국은 자유무역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부상
- 급속한 대외무역과 식민지 확장은 영국의 산업화를 가속화
  - 1814년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영국에서 탄생했고, 1851년 22개 철도망(총 길이 13,000km)을 확보
  - 1850년 영국의 도시인구는 60%를 초과했으며, 철강 생산량은 기타 국가의 생산량 합계보다 많았으며, 석탄은 세계 총 생산량의 2/3, 면직은 절반 이상을 차지

"북아메리카의 평원은 우리의 옥수수밭이고, 캐나다는 우리의 삼림 지역이며, 호주에는 우리의 목장이 있다. 페루의 백은과 남아프리카의 황금이 런던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으며, 인도인과 중국인은 우리를 위해 차를 재배해주고, 우리의 커피, 사탕수수와 향료 재배원이 東印度 군도에 널려 있다. 우리의 면화는 미국 남부를 포함한 온난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 1985년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 -

## 5) 프랑스

- 루이 14세부터 루이 16세까지 봉건군주제가 쇠약기로 접어들고 계몽사상이 탄생
- 루이 14세 당시 프랑스는 유럽을 장악하며 군주제를 실시
  - 루이 14세는 1661년부터 유럽을 장악하기 위해 재위 54년 중 31년 동안 전쟁을 치름
  - 전쟁으로 증가된 세수의 분배 문제로 프랑스의 특권계층과 하부계층 간 모순이 확대되고 군주독재의 폐단이 루이 16세 통치기까지 지속됨

- 루이 16세 통치기간 중 사회모순이 격화되었고, 결국 농업흥작이 도화선이 되어 프랑스대혁명이 발생
  -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군주제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공략하면서 프랑스대혁명이 발생
  -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후 20일 만에 국민의회가 모든 봉건특권을 폐지한다고 선포하면서 절대 군주제의 막이 내림
- 1789년 8월, 프랑스대혁명의 강령인 '인권과 국민권 선언'이 정식 통과됨에 따라 구시대 왕권의 특권을 폐지하고 인권과 법제를 새로운 사회질서에 맞도록 개편
- '인권선언'에서 구현된 프랑스 계몽사상(자유, 평등, 박애, 인권 등)이 프랑스대혁명을 견인한 동력
  - 볼테르, 루소 등이 주창한 계몽사상은 시민들이 '스스로 사람임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국가, 정권기구, 종교생활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
- 1792년 9월, 프랑스 제1 공화국이 탄생되었고, 루이 16세가 4개월 후에 처형됨

□ 나폴레옹 시기는 표면적으로는 전성기로 보였으나, 사실은 허구적인 영광과 거듭되는 혼란의 연속

- 대혁명 후 혁명의 과급을 우려하는 유럽의 각 군주들은 프랑스 반대동맹을 구성하여 프랑스와 반복되는 전쟁을 치름
- 10여 년 간의 혁명, 테러와 혼란을 거치며 프랑스 인민들은 사회안정을 갈망하기 시작
- 전장에서 승리를 거듭한 나폴레옹을 통해 프랑스 시민들은 새로운 질서와 권위회복의 희망을 가짐

- 1804년 12월, 나폴레옹은 파리 성모마리아에서 프랑스의 제국황제가 됨
  - 나폴레옹은 1789년의 혁명원칙을 준수한다고 선서했고, 1804년에는 <민법전>을 선포
- 1811년, 나폴레옹은 유럽 전반을 점령하면서 프랑스대혁명을 광범위하게 전파
- 그러나, 나폴레옹은 지나친 피침략 시민 억압으로 프랑스에서도 민심을 잃었고,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한 후 생을 마감
- 1875년에 공화파와 군주파 간의 타협으로 프랑스 제3공화국이 탄생
- 반복되는 혁명과 전쟁으로 신경제 대국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
  - 1870~1913년 동안 프랑스 경제가 두 배 성장에 머문 반면, 독일은 4.6배, 미국은 8.1배나 증가
- 두 차례나 거듭된 세계대전으로 경제성장의 기회를 상실

□ 프랑스는 계몽사상을 통해 전쟁 이후의 부흥을 꿈꾸며 대혁명에서 제시된 이상과 점차 접근

- 1944년 드골은 프랑스의 합법적 지위를 성공적으로 회복
- 드골은 국내 정국 안정, 경제발전, 독립외교 대외정책 등을 통해 프랑스 제5공화국이 대국의 행렬에 들어서도록 노력
  - 드골은 진보를 통해서만이 국가독립을 수호할 수 있으며, 경제력이 약한 프랑스는 세계에서 설자리가 없다고 주장
  - 자유와 평등의 계몽사상은 독립자주와 국가 간의 상호 존중, 평화공존에서 구현된다고 강조

- 프랑스 경제는 드골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주주의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

## 6) 독일

□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분열된 독일은 통일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

- 1648년 유럽 각국은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에 의거하여 독일 신성로마제국을 314개 우방국가로 세분, 자체 정치를 구현
- 1806년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독일 신성로마제국이 해체
  - 독일제국의 최대 우방국인 프로이센과 오지리는 프랑스에 참패한 후, 프로이센 국토 절반과 1.5억 프랑에 달하는 전쟁배상금을 지불
- 1814년 나폴레옹이 유럽 각국으로 구성된 프랑스 반대동맹에 의해 침몰한 후, 영국과 러시아 주도의 38개 우방국으로 구성된 '독일연방'이 설립
-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독일은 프랑스대혁명에서 제창된 자유와 평화사상이 전파되었으며, 하나의 통일된 자유국가 설립의 기반이 마련

□ 독일의 통일은 관세동맹을 확립하면서 시작됐고, 비스마르크의 뛰어난 외교수단과 군대의 힘을 통해 완성됨

- 정치통일을 실현해야만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런 통일은 점진적인 평화방식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믿음
- 1834년 1월 1일, 프로이센 주도 하에 독일관세동맹이 설립
  - 관세동맹을 설립해 상품, 자본, 노동력의 자유유통을 실현
- 19세기 중엽, 관세동맹지역의 공업 총생산량이 영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면서 독일의 경제통일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섬

- 1848년 자산계급 민주혁명이 실패하면서 독일은 평화적 민주방식을 통한 통일정치의 실현기회를 상실
- 비스마르크의 외교는 영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프랑스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방향을 견지
- 1866년, 프로이센-오지리전쟁이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면서 오지리는 독일연방에서 사라짐
-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독일통일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됨
-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에서 통일독일의 탄생을 알림

□ 과학과 교육을 초석으로 한 통일독일은 비교적 평화적인 환경 아래 국가 궤기를 단행

- 독일은 망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독일은 인구, GNP, 광물생산량, 철도건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프랑스와 영국을 능가
- 국가진흥의 근간인 교육을 강조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프로이센은 훔볼트대학을 비롯한 현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국민교육과 기술개발의 초석을 마련
- 비스마르크는 국가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 한다고 강조하며 영국의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폐단을 보완
  - 비스마르크가 선택한 발전모델은 국가가 정책을 제정하고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선도하며 국가의 힘으로 전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임

-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군대에는 동의하지만 군에 의한 국가의 영토확장은 동의하지 않음

□ 20세기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주도하며 전세계 권력, 경제구도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1890년 비스마르크를 이어 윌리엄 2세가 황제로 등극한 후, 선진 과학기술과 프로이센 군국주의를 긴밀히 결합한 독일제국으로 발전
- 1913년 독일은 영국을 능가하며 미국 다음의 세계경제 대국으로 부상
- 1914년과 1939년에 독일은 세계대전을 주도하며 인류문명사에서 가장 암흑하고 침통한 역사를 남김
  - 2차 대전에서는 250만 유대인을 학살한 치욕의 역사를 남김
-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연방독일과 민주독일로 분열됨

□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세계평화에 기반한 경제부흥을 창조

- 독일은 암울했던 역사를 통해 안정적인 민족부흥을 이룩한 국가
  - 2차 대전 이후 연방독일은 독일 파쇼에 의해 박해를 받은 수해자 및 그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
  - 1970년 10월, 새로 취임한 연방독일의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기념비 앞에서 참회
  - 교육부는 파쇼폭행의 역사를 교과서에 실어 차세대 교육의 초석으로 삼음
- 1990년 10월, 41년간 분열된 독일이 평화통일을 실현
- 120년 전과 마찬가지로 통일 후의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극복하고 미국과 일본 다음인 세계 제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 EU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서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며 강대국으로 부상

## 7) 일본

□ 西方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한 막부(幕府)정부는 대외적인 문호개방을 통해 강대국 대열에 다가섬

- 1764년부터 100년 동안 西方강국들이 52 차례나 일본의 개방을 요구
  - 1853년 7월, 미국은 인도함대 사령관 페리를 파견하여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 통상을 요구

□ 1868년부터 시작된 메이지유신은 일본 현대화의 시발점

- 계속된 미국의 강압으로 일본은 불평등조약을 체결했고, 이 후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과 잇달아 조약을 체결
- 1868년 막부시대가 막을 내리고, 메이지시대에 접어들면서 외부와의 교역을 일본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음
- 1868년 메이지 천황은 '5대 선언문'을 공포하며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단행
- 1871년 메이지정부는 이와쿠라를 대표로 한 사절단을 구미 각국에 파견하며 일본의 대외정치를 주도
  - 이와쿠라사절단의 부단장인 도시미찌는 귀국 후 메이지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일본의 산업화를 추진
    - 일본 제국대학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일본의 서구화를 위해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

- 메이지정부는 주요사업들을 정부주도로 운영하다가 정상화되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산업부흥을 주도
  - 미쯔비시, 미쯔이, 스미토모 등 회사들은 정부주도로 운영되다가 민간경영으로 넘어간 대표적 기업

□ 일본은 '통제경제모델'을 통해 자본주의 근본 아래 국가주도형 경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산업화를 실현

- 간단한 '모방주의(拿来主义)'를 추구하던 도시미찌의 개혁은 일본 전통문화와 잦은 마찰을 야기
- 히로부미는 일본 '군국주의'를 강화하며 사회모순을 해결하려 노력
- 1878년 히로부미는 "메이지유신의 성과를 유지하고 천황에 대한 존경과 신성불가침 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과 군대통솔권을 천황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

□ 1890년 일본은 전쟁을 통해 西方강국과 맞서려 했으나, 결국 2차 대전의 참패로 모든 것을 잃게 됨

- 메이지유신의 성공과 함께 일본은 무력으로 인접국인 조선을 침략
- 조선과 중국의 대만을 점령하여 대량의 자원과 배상금을 얻어냄
- 일본의 군국주의 야심은 날로 팽창하여 태평양과 인도양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짐
- 2차 대전의 실패로 메이지유신 이후 80년 동안 축적해온 부와 국가이념을 한 순간에 잃어버림



- 1945년 8월, 미군의 히로시마와 원자탄 투하를 계기로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던 일본 군국주의는 막을 내림

□ 메이지유신이 가져온 이념과 혁신은 일본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의 기초가 됨

- 패전국 일본은 서구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면서 경제강대국으로서의 내실을 다짐

- 1947년 5월 발표된 '평화헌법'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상을 제시
  - 새로 개정된 헌법에는 "일본의 주권은 국민이며 천황은 단지 일본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내용을 통해 국가와 천황의 의미를 정의함
  - "일본은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육·해·공군 및 기타 군력을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

- 1964년에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고속철인 '신간선'이 개통되면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함

- 1968년, 일본의 GNP가 1,419억 달러를 넘어서며 미국과 舊소련에 이은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

## 8) 러시아

□ 東西方 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들인 국가

- 10세기 키예프루시 정부의 블라디미르가 산재해 있는 신교들을 폐지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西方의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

- 13세기 중반, 몽고부대의 러시아에 대한 통치로 인해 러시아의 '西方化' 과정이 주춤거림

- 15세기에 몽고로부터 독립하면서 기독교 세계를 통한 西方化 작업이 재개

- 1547년에 이반네제 4세는 러시아에 군주전제제도를 확립
- 東方과 西方의 문명 속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혼합된 문화를 보유

□ 차르러시아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토확장에 전념하며 세계 최대의 국토보유국으로 부상

- 1547년 러시아의 첫 번째 황제인 이반네제 4세는 부대를 거느리고 우랄 산맥을 넘어 인구가 극히 드문 시베리아에 입성
- 네덜란드와 오스만터키와의 전쟁을 통해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
- 표트르 1세가 등극 당시 러시아는 이미 유럽-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국토를 보유하며 세계 최대의 영토보유국으로 성장
  - 16세기 중엽에는 영토면적이 280만 km<sup>2</sup>로 확장
  - 20세기 초 러시아는 세계 토지의 6분의 1를 차지했고, 국토의 동서길이가 15,000km에 달함

□ 17세기부터 러시아 군주는 대내 독재와 대외 확장방식을 통해 강대국의 면모를 다짐

- 표트르 1세의 개혁으로 러시아와 주변 유럽강국으로 영향력을 확대
  - 1698년 표트르 1세는 사회개혁 추진 일환으로 러시아의 전통 역법을 폐지하고 유럽의 기원년식을 사용
  - 1709년 표트르 1세는 군대를 강화하여 스웨덴을 격파하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제고
- 예카테리나 2세는 교육분야에 역점을 두며 문화의 근간이 되는 지식층을 대량 양성

- 아울러 영토를 지속 확장하여 아시아, 유럽, 미주를 가로지르는 초강대국으로 성장
  - 18세기에는 북미주의 알래스카와 태평양의 알류산군도가 러시아의 영역으로 편입됨

□ 19세기 중엽, 농노제를 실시해온 차르러시아 정부는 노동자계급의 반발에 의해 무력으로 유지되어 오던 정권이 몰락

- 1856년 러시아는 영국-프랑스 연합과 치른 크림전쟁에서 패전하면서 농노제가 폐지되고 자산계급이 등장
- 19세기 후기의 러시아는 입헌군주제와 토지평등분할제 등의 사상과 생산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발생
  - 이 과정에서 체르니셰브스키, 벨린스키, 프레한노브, 튀얼스태 등의 러시아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나타남
- 1905년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자산계급혁명이 발생

□ 레닌이 주도한 소비에트 정부가 탄생하며 신경제제도를 주창

-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 소비에트 정부가 탄생
  - 레닌의 혁명사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러시아의 역사가 시작됨
- 1921년 3월, 외부세계와의 단절, 군사압력, 식량위기 및 정치동란 등의 문제에 직면한 舊소련 정부는 신경제정책을 단행
  -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舊소련의 사회주의에 주입
- 신경제정책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영입하여 舊소련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목적

□ 스탈린은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수정하고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를 통해 舊소련의 산업화를 추진

- 신경제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듯 보였으나, 여전히 1928년 기준으로 공업생산량은 독일의 절반, 미국의 8분의 1 수준에 머물렀음
  - 농업에 있어서도 99%의 과중은 여전히 목축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짐
- 스탈린은 국가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산업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
- 1929년 5월, 소비에트 제5차 대표대회에서 '국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
- 1929년 西方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부딪혔을 때 舊소련은 오히려 제1차 5개년 계획경제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
- 1932년에 제1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되면서 舊소련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
- 1937년 제2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되면서 舊소련의 공업생산총액이 유럽 제1위, 세계 제2위로 부상

□ 제2차 세계대전에서 舊소련의 거대한 생산능력이 나치스독일을 압도하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

- 전쟁기간 舊소련은 제2차 5개년 기간의 트랙터공장을 탱크공장으로 전환
- 1942년 舊소련의 비행기 생산량이 2만대 이상에 도달하며 독일 생산량의 2배에 달함

- 독일군의 패전이 결정된 1945년 2월 당시, 舊소련의 스탈린은 미국, 영국의 수뇌자인 루스벨트, 처칠과 함께 얄타회담에 참석
  - 이는 舊소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대국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
- 20세기 중반 미국과 舊소련이 주축이 된 사상대립이 지속됨

□ 스탈린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달하자 舊소련은 붕괴의 조짐이 보임

- 경제발전의 불균형, 중공업과 군사산업에 편중된 구조, 경공업과 농업의 쇠락 등이 주요 붕괴 원인
- 공업생산량은 증가했으나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과거와 다를 바 없었음
  - 스탈린이 서거했을 당시, 인구당 곡물 생산량, 인구당 육류생산량이 차르러시아 시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음
- 스탈린에 대한 맹목적 숭배, 관료주의 만연 등이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어 결국 1991년 舊소련이 해체됨

## 9) 미국

□ 자치권을 중요시하고 중앙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이념이 조기에 정착

- 영국령에 속하던 북미주 자치지역들은 자체적인 법률 아래 생산과 교역을 통해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음
  - 1620년, 북미주에 도착한 영국 청교사는 민중자치단체를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자립생존의 기반을 다짐
- 영국제국이 식민지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하자 북미주 식민지는 연합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구성

□ 자치주 대표들의 협상을 통해 헌법을 제정하고 13개 주가 연합하여 연방 정부를 수립

- 13개 주의 각기 다른 화폐, 세금제도, 생산교역 등의 문제가 침해해지자들이 조정하고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됨
- 1787년의 헌법제정회의에서 일부 권리를 관할하는 연방정부 설립에 동의

□ 유럽이민자들이 대거 미국에 진입하며 노동시장, 생산기술, 시장경제의 기반이 형성됨

- 루스벨트의 정부 출범 전까지 미국이 일관되게 실시해온 것은 자유주의 경제모델로써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 범위로 유지하는 것임
- 영국의 제1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된 신기술이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에 이전

□ 내전을 통해 지역간 통일이 이루어지고 침해했던 문제들이 해결됨

- 미국 北方은 공상업을 발전시켜 농노제를 폐지하기를 원했고, 南方은 목화생산을 위해 농노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침해하게 대립
- 1861년, 南方의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
  - 4년간의 전쟁을 통해 北方연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농노제 문제를 해결

□ 특허권제도, 금융제도 등은 '전기혁명'으로 대표되는 제2차 산업혁명을 촉진

- 1787년 헌법이 처음으로 특허권을 법으로 인정하면서, 수 많은 발명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
- JP모건 등의 금융권은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발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통한 수익배분 사업에 참여

- 증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기술 개발로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1894년에 미국은 탄생한 지 118년 만에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으로 부상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의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의 모순을 직간접적으로 완화하기 시작
- 비록 미국경제는 고속성장하고 있었으나, 소득의 양극화 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 아동노동력 착취 등의 어두운 면도 많이 있었음
  - 정부는 어떻게 대다수 미국인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민
  -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정부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독점기업들에 대한 금지조항을 발표
    - 기업담합이 법으로 금지되고, 록펠러 석유회사 등의 독점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정부의 개입으로 노사관계를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과 휴식에 대한 법규를 제정
-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해낸 미국은 자유경제를 근간으로 한 정부관리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
- 후버 정부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결국 1,700만의 실업자와 200만 명이 부랑민을 양산
  -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부관리경제로 인해 미국은 현재까지 전세계를 호령하는 경제부국으로 성장

- 미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양로, 실업, 최저임금 등의 복지제도에도 주력하며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지님

### 3. 社會 各界의 反應

#### 언론의 반응

□ 중국 언론과 아시아 언론들은 <大國崛起>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인민일보(人民日報)>는 <大國崛起>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조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 언론의 이성적 역량을 재조명했다고 평가<sup><1></sup>
  - <大國崛起>는 국민들에게 역사, 국가, 민족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일조
- <광명일보(光明日報)>는 역사적 深思와 글로벌 시각으로 중국의 현대화를 주도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
- 홍콩 <명보(明報)>는 중국의 궤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평화궤기'를 기반으로 한 과감한 추진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논술
- 한국 <조선일보>는 중국이 강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역사관'을 대폭 수정하고, 강국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외국의 경계심리를 줄이려 한다고 주장

□ 일부 언론들은 <大國崛起>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임

- 중국 광저우(廣州)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인류문명사에 기반한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大國만을 선동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논평
- 홍콩 <평과일보(蘋果日報)>는 <大國崛起> 프로젝트는 차기 정치 및 사회 개혁을 위한 여론조성용 정치수단일 것이라고 주장

<1> 쉬신(徐馨), '역사를 통해 미래를 조명', <人民日報>, 2006년 12월 1일



- 싱가포르 <연합일보(聯合日報)>는 역사적 사실 정리를 통해 중국의 지속성장에 따르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
  - 현재 제1차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은 조화롭고 균형적인 성장을 무엇보다 중시
  - 제2차 현대화사업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에 걸쳐 사상 및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날 것을 우려

□ 서양언론은 <大國崛起>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보임

- 영국 BBC는 <大國崛起>가 중국의 이기적 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평가
  - 역사적 다면성을 외면한 채 편협한 시각으로 식민주의와 강권주의의 전철을 밟을 것에 대해 우려
- 미국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쉼기를 위해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계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
  - 기사는 중국이 崛起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외환보유고, 군비 및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의 적극적 외교공세 등을 예로 들며 중국의 글로벌 세력확장에 대해 높이 평가
- 미국 VOA는 <大國崛起>가 역사적 사실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일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게 전개하지 않았다고 평가
  - 미국의 연방헌법을 언급할 때 미국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3권 분립의 원칙'과 '정부권력 제한' 및 '국민의 자유보장' 이념을 누락

중국 전문가 및 학자의 반응

□ 대부분 전문가와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 첸잉이(錢穎一)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장은 <大國堀起>는 경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 국가적,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
- 쉬쯔홍(許志宏) 베이징대학 총장은 다른 나라의 수백 년 발전 역사를 볼 때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한 중국의 선택이 바람직했다고 논평
- 리이닝(厲以寧) 베이징대학교 前광화관리학원장은 세계 역사를 통해 강국들이 껴기한 과정 및 교육 중시, 과학과 자본의 결합, 체제개혁 등의 사상 측면에서 유익한 시사점을 줬다고 평가
-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 원장은 <大國堀起>가 중국 국민들이 서방 국가의 발전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
  -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국 개혁을 가속화하는데 기인
- 왕이밍(王一鳴)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역사적 경험을 전파함으로써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중요한 경험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
- 탕중난(湯重南) 일본사학회장은 정확하고 엄숙한 역사관으로 국민들이 세계의 발전과정과 대국들의 성장과정을 볼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논평
  - 세계발전의 흐름과는 다른 장기적 폐쇄과정을 걸어 온 중국은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초석으로 삼을 필요
- 우젠민(吳建民) 외교학원장은 다른 나라의 발전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학습해야 할 부분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설명
  -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상문화처럼 독립적인 사고능력과 사상문화를 키우는 것이 중요
- 차이방바이(蔡方柏) 프랑스연구회장은 대국 껴기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안정된 국가 內政과 外政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

- 위페이(于沛)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장 겸 중국사학회 부회장은 국가의 궤기는 내부적 통합과 경제생산력 증진을 통해 국가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주장
  - 서로 다른 문명과의 충돌 속에서 유익한 영양분을 섭취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일부 학자들은 <大國崛起>에도 여전히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주장

- 당귀잉(黨國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大國崛起>를 통해 憂國憂民 의식은 구현하였으나, 여전히 국민들에게 大國崛起的 핵심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지 못했다고 지적

## 시민들의 반응

□ 일반 시민들은 <大國崛起>의 내용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

- 일부 시청자들은 <大國崛起>가 스탈린 대학살, 영국의 아편전쟁을 이용한 착취, 아메리카 인디안의 대규모 학살사건 등 일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누락하고 대국의 궤기과정을 미화했다고 주장
- 서방국가가 궤기하고 중국이 궤기하지 못한 원인들을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
  - 사실상 서구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식민약탈, 불평등 조약, 식민지 정책, 흑인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언급은 회피
- 지난 1988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허상(河殤)>과 유사하게, 한정된 지면에 수백 년에 달하는 역사를 개괄하여 내용이 지나치게 공허하고 견해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주장

□ 전반적인 상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유익한 시도였다고 평가

- <大國崛起>는 회당 시청자 수가 400만 명에 달했고, 한 시청자는 방송국에 전화하여 12차에 걸쳐 재방송할 것을 요구
- 일부 시청자들은 지금까지 CCTV 프로그램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
- '프랑스' 편을 본 한 시청자는 중국 TV 프로그램 역사상 지도층들이 꺼려했던 프랑스 민권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폭넓게 다룬 적이 없었다고 감회를 밝힘
- 많은 시청자들은 <大國崛起>가 외국에서 수입된 프로그램인줄 알았으며, CCTV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고 밝힘
  - 중국의 현 체제와 거리가 먼 평등과 인권, 민주사상 및 시장경제를 제대로 강조했다고 평가
- <大國崛起>를 1989년 6.4운동 직전 중국이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에 제작된 <허상>과 결부시킴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전국문화대표대회에서 진리를 추구할 것을 독려하는 연설을 회상하며 국가와 민족에 희망이 보인다고 자평

□ <중귀칭넌바오(中國青年報)>의 조사에 따르면 80.4%의 중국 국민들이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꺾기할 것을 기대

- 2006년 12월 18일~24일 중귀칭넌바오가 <大國崛起>에 대한 여론조사(총 15,190명 참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27.5%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았으며 29.4%가 '보지 못했으나 들어 본적이 있다'고 대답<2>
-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大國'과 '崛起' 두 단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大國崛起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응답

<2> 조사는 텅선닷컴(Tecent), 베이징이파이(益派)시장건설팅유한회사의 e-Panel 온라인조사 플랫폼, 중귀칭넌바오 전국 독자네트워크 등 3개 채널을 통해 실시

- '大國崛起를 고려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4.7%가 '그렇다'고 응답
  - 도시의 젊은 지식인들이 주요 독자층인 <중귀칭넌바오> 독자들 중 '중국이 쫓기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63.0%로 더욱 높았음
-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감안하여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쫓기했다'고 한 응답자 수는 1.6%에 불과
  -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은 현재 쫓기고 있는 중(49.0%)' 또는 '아직 쫓기지 않았다(47.0%)'고 판단
-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大國崛起를 실현하는 것을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80.4%가 '매우 기대한다'라고 응답해 중국쫓기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강렬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중국의 쫓기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응답자 53.6%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중국의 쫓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8.1%는 '자신이 중국의 쫓기를 직접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
- 중국쫓기의 구체적인 시간과 관련하여, 응답자 17.3%가 '중국쫓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년 미만', 16.1%는 '21~30년', 18.7%는 '31~50년'이라고 응답
    - 응답자 34.9%는 '중국이 쫓기하는데 최소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으며, 그 중 18.1%는 심지어 '100년 이후에야 실현 가능 할 것'으로 전망
- 조사 대상자들은 현재 중국이 인구(82.1%의 응답자)와 스포츠(50.9%) 두 분야에서만 대국이라고 응답
    - 정치(40.3%), 외교(38.2%), 경제(37.2%), 문화(26.5%), 자연자원(26.2%), 군사(24.8%) 등 분야에서도 중국이 대국이라고 인정한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응답자 95.7%는 '중국 국민의 자질이 대국의 이미지와 아직 거리가 멀다'고 주장

## 다른 나라의 반응

□ 러시아,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大國崛起>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

- 러시아 주중대사관은 <大國崛起>의 러시아 편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주최할 계획
- 네덜란드 주중대사는 <大國崛起>가 많은 사람들에게 네덜란드의 역사를 보여 줬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의 네덜란드를 보여 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4. <大國崛起>의 교훈

□ 세계 주요국가 발전역사의 집단학습을 통해 중국의 도약을 모색

- 2003년 11월, 후진타오가 주재한 중공정치국은 '15세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 발전역사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집단학습을 지시
  - 15세기 이후 세계에서 존재한 적이 있거나 현존하는 대국의 興亡盛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각급 당정부문이 이를 학습할 것을 지시
- 언론에 발표된 후, 중국의 CCTV는 12편으로 된 대형 다큐멘터리 "大國崛起"를 방영하고 동시에 8권으로 된 도서도 출판
  - 다큐멘터리와 도서는 500년의 세계역사를 9개 국가 중심으로 다룸
  - 100여명 학자와 전문가와 국가 정계인사 등 '중국 엘리트'의 견해도 반영
- 본 작업에서 다룬 '大國'이란 정의는 인구와 면적뿐 아니라 경제, 제도, 인물 등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 광범위적 의미

□ 중국의 발전에 동반된 문제점들을 세계역사의 교훈을 통해 완화하려는 의도

-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대목표로 삼은 결과, 자원낭비, 환경오염, 소득불균형 등의 사회문제를 양산
-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사회질서 유지화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
  - 중국 역사상 사회적 가치의 전환은 항상 충돌과 붕괴를 동반했기 때문에 현재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중국정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
- 다양한 대국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통해 他山之石으로 삼으려는 의도
  - '大國崛起'는 역사적 시각과 글로벌 시각으로 각국이 쫓기던 역사단계를 연구하여 국가발전을 추진하는 근본 역량을 정리
  - '大國崛起'는 9개 국가의 현대화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화를 추진 중인 중국에 초석으로 삼으려 함
- 중국의 '안정적 쫓기'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증대
  -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속도에 대해 구미와 일본은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며 중국의 쫓기가 세계경제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여김
  -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평화적 쫓기'를 제기하며 중국은 세계경제의 패권을 노리지 않는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고 싶어함

□ '大國崛起'는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의 대국들이 쫓기하는 과정을 기술

- 해양시대의 강국이었던 포르투갈, 스페인
  -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최초의 통일민족국가로서 강대한 왕권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국가
  -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로 마젤란과 콜럼부스는 영역을 확장을 통한 제국건설에 나섬

- 강소국으로서 대업을 이룩한 네덜란드
  - 고기잡이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유럽, 남유럽,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통해 국가기반을 확립
  - 東印度회사와 암스테르담은행 등의 무역, 금융회사들이 국가신용을 기반으로 성장
  
- 산업화와 현대화로 매진한 영국
  -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창조와 식민지 개척을 통한 자원, 시장확보를 통해 가장 일찍 현대화 국가 대열에 진입
  - 정부와 기업의 과학기술 지원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로 발명기술을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
  - 스미스는 '국가부유론'과 정부의 '보이지 않은 손'을 강조하며 새로운 자유경제질서를 추구
  
-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프랑스
  - 프랑스의 '사상계몽운동'에서 제기된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은 봉건 군주독재를 타파하고 자주독립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사상을 정립
  - 나폴레옹의 유럽 개척과 드골의 사상혁명을 통해 국가기반을 마련
  
- 대외무역과 교육제도 정립으로 제국춘추시대를 실현한 독일
  - 관세동맹의 설립으로 통일된 민족시장을 형성하였고, 통일국가의 건립을 통해 대내경제, 대외무역발전 등의 업적을 이룸
  - 무료교육 제도로 우수한 민족을 양성했으며, 대학교육의 개혁으로 제2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최전방에 섬
  
- 西方化를 통해 개혁을 이룩한 백년유신의 일본
  - 메이지유신부터 '西方化' 정책을 실시하며 西方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西方의 생활방식을 모방하며 경제부국으로 성장
  - 자주창신을 독려하며 파나소닉, 소니 등의 글로벌 브랜드를 창조



- 강대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개혁을 도모한 러시아
  - 스탈린은 舊소련의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를 초석으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동반한 경제체제 확립
  - 군사강국이라는 대업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원자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등 군사력 중심의 대외영향력 창출
- 국민의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연합국가를 탄생시킨 미국
  - 남북전쟁 이후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농업, 산업개혁을 단행
  - '두 개의 손' 이론으로 정부와 민간경제의 조화를 강조

□ 大國崛起는 결국 강권정치, 과기교육,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확립으로 귀결

- 大國崛起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 국가의 대외적 쫓기는 실제로 내부역량에서 파생되는 결과이며, 국가 내부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이 불가
  - 포르투갈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9개 대국이 쫓기하는 과정은 모두 강력한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있었음
-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과 교육개혁이 강대국 유지의 초석
  - 기술창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미국 등이 현대화 대열에 진입하도록 한 근본 추진력
  - 독일은 다수의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배출하였고, 일본은 인재중시 사상으로 패전의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기적을 창조
- 개혁개방을 통한 대외교역 활성화
  - 9개 국가의 쫓기는 모두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정치, 경제개혁으로 귀결
  - 포르투갈의 신 대륙을 발견, 네덜란드의 해양무역, 영국의 식민지 확장, 미국의 군수품 수출은 모두 대외정세를 이용한 쫓기
-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근대화된 국가로 변모

- 지난 500년간의 역사는 현대화 과정의 초석이었고, 실제적인 현대화는 아담 스미스의 '국가부유론'으로부터 시발
- 9개 국가 모두 정부와 시장의 조화로운 역할에서부터 현대화가 진행됨

□ '大國崛起'는 중국의 도약을 위한 '위대한 역사적 유산'을 제공

- 현대화를 추진 중인 중국에게 역사적 산물을 통해 견해를 넓혀 주는 역할
  - 현대사회의 발전과정을 회고하여 인류의 현대사회 진화과정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 500년의 세계역사를 통해 민족문화의 자긍심과 지혜, 그리고 스스로 반성할 계기를 마련
- 글로벌화 추세에 탑승하고 있는 인류의 공통사고를 중국에 전파
  - 글로벌 경제트렌드, 정치와 문화 등의 국가발전 근원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독려
  - 9개 西方 현대국가의 건립이념과 다양한 사회제도 학습을 통해 중국사회의 자주적 발전모델을 제시